

11-16-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시편 12:1-5

말씀제목: 가난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내가 일어서리라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행 2:34-35)

예수께서 스테반이 돌아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나셔서 오시려고 하셨으나 스테반이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55-56)

다윗왕은 마지막 때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백성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가난과 궁핍 가운데 탄식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마침내 일어서시게 되실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시 12:5)

경건치 못한 자들이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가난 속에서 고통받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셔서 그들을 위해 원수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복수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고 증거하며 예언했습니다: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길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사 64:1-3)

이사야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아무도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사 64:4)

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하여 같은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고전 2:9-11)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오시는 것이 세상을 향해 복수하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 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사 63:1-6)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 24:36-39)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직 그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보시고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육천 년을 돌아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찾지도 않고 오직 그들은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복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술력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함으로 인해 백성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술의 희생제물이 되게하여 가난과 궁핍 가운데 고통 받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노아 시대에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조만간 세상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AI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AI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 베드로는 앞으로의 심판이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술들을 불로 태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벧후 3:10-13)

아멘! 할렐루야!